

증례

봉약침치료를 병행한 임신중 대상포진성 구안와사 환자 치험 1례

강미숙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A Clinical Study on the Case of Herpes Zoster Otiucus Occurred in Pregnancy Treated with Bee Venom Pharmarcopuncture

Kang Mi-suk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Bee venom Pharmarcopuncture on facial palsy in Herpes Zoster otiucus.

Methods : We used the acupuncture and Bee venom Pharmarcopuncture complex therapies on facial palsy in Herpes Zoster otiucus occurred in pregnancy. The improvement of the symptom and facial movement was evaluated by VAS and Yanagihara scale.

Results & Conclusions : After treatment, both VAS and *Yanagihara's* scal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is case, we found that the acupuncture and Bee venom Pharmarcopuncture complex therapy is effective for facial palsy in Herpes Zoster otiucus.

Key words : Facial palsy in Herpes Zoster otiucus, Bee venom Pharmarcopuncture, *Yanagihara's* scale. Pregnancy

* 이 연구는 경원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접수 : 2010. 3. 25. · 수정 : 2010. 3. 30. · 채택 : 2010. 3. 31.

· 교신저자 : 강미숙, 인천시 중구 용동 117. 경원대학교 부속길한방병원 침구과

Tel. 032-770-1212 E-mail : cyberdoc@kyungwon.ac.kr

I. 서론

이성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원인은 Herpes 바이러스군에 속하는 Varicella Zoster Virus로 소아에서는 최초 감염으로 수두를 일으키고,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 재활성화되면 대상포진이 된다^{1,2)}. 이성 대상포진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이부의 대상포진, 외이부의疼痛 및 심한 경우 청력장애, 이명, 현훈, 삼차신경통 및 嘎聲 등의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¹⁾.

봉약침요법이란 살아있는 꿀벌(서양종 일벌, *Apis mellifera*)의 독낭에서 봉독을 추출, 가공하여 약침제제로 만든 후 경락학설의 원리에 의하여 질병과 유관한 부위 및 穴位에 주입함으로써, 刺鍼효과와 봉독의 화학적 약리작용을 동시에 이용하여 생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병리상태를 개선시켜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적 침구의학의 한 분야이다³⁻⁶⁾.

이성 대상포진은 한의학적으로 口眼喎斜, 纏腰火丹, 痘瘡 등의 범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성 대상포진은 완전신경변성의 가능성이 높아 Bell's palsy에 비해 안면마비의 회복률이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으며⁷⁻¹⁰⁾, 한의학적 치료로 鍼요법, 灸요법, 약침요법, 전침요법, 봉약침요법, infrared therapy, massage, 한약요법, 물리요법 등이 유효하다는 보고들이 있었으나, 그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7,11-13)}. 이에 임신중에 발생한 이성 대상포진으로 인해 복약을 기피하는 안면마비 환자에게 봉약침을 시술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1. 대상

김○○(F/41)

2. 주소증

右側 顔面麻痺
流淚
患側 顔面部 麻木感

3. 발병일

2009년 9월 2일 임신 26주(7개월)

4. 과거력, 가족력

별무

5. 현병력

본 증례의 환자는 보통체격의 여성 환자로 2009년 9월 2일 고령 임신중(임신 26주)에 발병한 대상포진으로 목에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포진과 동통이 있었고, 9월 7일 갑자기 극심한 耳後痛이 생기면서 이틀 후(9월 9일) 우측 口眼喎斜 및 우측 耳部에 수포가 발생하였다.

인하대병원에서 대상포진성 안면마비 진단을 받은 후, 임신중이라 약물치료는 하지 않고 9월 9일부터 6주간(3회/주) 정상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다. 9월 18일 근진도 시행 후 9월 21일부터 침술원에서 7회 침치료를 하였으나 별무 호전하였고, 9월 30일부터는 한의원에서 침, 한약, 전침시술 후 다소 부드러운 느낌(9월 30일~11월 5일 주 3회)은 있었으나 얼굴 모양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09년 11월 6일(임신 35주)에 출산(2.38kg)한 후 한 달간 몸조리하느라 치료를 받지 못하자 안면마비가 처음 발병 상태와 유사한 상태로 심해져 2009년 12월 6일 본원 침구과로 내원하였다.

6. 초진소견

식욕 : 양호
소화 : 양호
대변 : 양호
소변 : 양호
수면 : 아기 때문에 頻覺, 수면 부족
脈·舌 : 脈微數 舌微紅 苔微黃
대상포진으로 인한 목 부위의 수포 후 scar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적게 흔적만 있는 상태

7. 검사 및 이학적 소견

Electrodiagnostic Impression
Peripheral neuropathy of Rt. facial nerve

Table 1. Electromyography And Nerve Conduction Study

Motor nerve conduction study			
Nerve	Latency(ms)	Amplitude(mV)	
Rt. facial(nasalis)	not evoked		
Lt. facial(nasalis)	3.3	1.8	

Blink reflex			
		R1	R2
Rt. supraorbital nerve stimulation	Rt.	Not evoked	Not evoked
	Lt.		43
Rt. supraorbital nerve stimulation	Rt.		Not evoked
	Lt.	10.1	37.1

Needle EMG		
Muscle	At rest	On volition
Rt. frontalis	Silent	No motor unit potential
Rt. facial(nasalis)	P ⁺ F(1+)*	No motor unit potential
Lt. facial(nasalis)		

* : abnormal data. P⁺F : positive sharp wave

8. 치료방법

한약은 수유중이라 복약을 원치 않아 치료는 침치료를 위주로 하였으며, 집에서 자가로 안면 근육운동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1) 침치료

침은 동방침구에서 제작한 0.25mm, 길이 40mm의 1회용 stainless steel호침을 사용하여 주 3회를 원칙으로 20분간 留鍼하였다. 치료 혈위는 遠位穴로는 對側 足三里·解谿·合谷·太衝을, 近位穴로는 患側 魚腰·攢竹·迎香·散笑(迎香 外下方)·地倉·頰車·顴膠를 취하였다.

2) 전침치료

침치료 시 患側의 穴位인 魚腰-攢竹, 迎香-散笑, 地倉-頰車에 전침을 걸고 Mixed 3Hz. frequency로 20분간 유지하였다.

3) 봉약침치료

벌을 전자과 발생장치로 자극하여 채집, 가공한 건조 蜂毒을 죽염 약침액에 10,000:1로 희석하여 만든

봉약침액을 침치료 후에 拔鍼 한 후 患側 魚腰·顴膠 地倉·迎香 부위에 한 穴당 0.01cc 피하로 刺鍼하였다.

9. 평가방법

1) 시각적 유사척도(visual analog scale, 이하 VA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통증의 호전도의 객관화를 위해 사용되는 scale이나, 본 증례에서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의 호전도(얼굴근육의 움직임, 눈감기나 씹는 동작 등의 일상동작의 편리성에 관한 본인의 주관적 점수)를 초기 내원 시 상태를 10, 정상은 0을 기준으로 하여, 치료시작 전 환자 스스로 기입하게 하였다(VAS 성적평가는 1주 단위로 매 주초의 성적으로 표시하여 도표화 하였다).

2) Yanagihara's unweighted grading system¹⁴⁾

안면마비평가의 regional scale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unweighted regional grading system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였다. 4-normal, 3-slight 2-moderate, 1-severe, 0-total이라는 5point system을 사용하였고, 각 영역점수가 최종적으로 더해져 scale의 최종적 최고 점수는 40점이 된다(주 3회 치료가 끝나고 다음번 내원 시 치료 시작 전에 점수를 내어 주초의 치료 성적을 도표화하였다).

Table 2. Yanagihara's Unweighted Grading System

	Scale of five rating				
At rest	0	1	2	3	4
Wrinkle forehead	0	1	2	3	4
Blink	0	1	2	3	4
Close of eye lightly	0	1	2	3	4
Close of eye tightly	0	1	2	3	4
Close of eye involved side only	0	1	2	3	4
Wrinkle nose	0	1	2	3	4
Whistle	0	1	2	3	4
Grin	0	1	2	3	4
Dpress lower lip	0	1	2	3	4

10. 치료경과

1) 안면마비의 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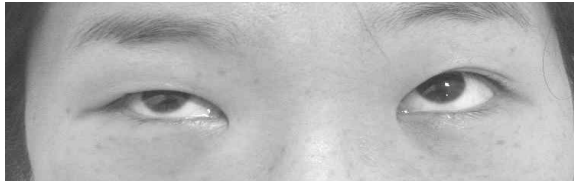


Fig. 1. Movement of Frontalis after 7weeks



Fig. 2. Movement of Orbicularis oculi after 7 weeks



Fig. 3. Movement of Zygomaticus Major after 7 weeks

2) VAS의 변화

내원 당시 환자가 느끼는 안면마비의 증상 호전이 주 3회를 원칙으로 21회 치료 후 VAS 1에서 VAS 8로 호전되었다.

Table 3. The Change of VAS

Week	0*	1	2	3	4	5	6	7
VAS	10	9	8	5	4	3	2	2

* : 치료시작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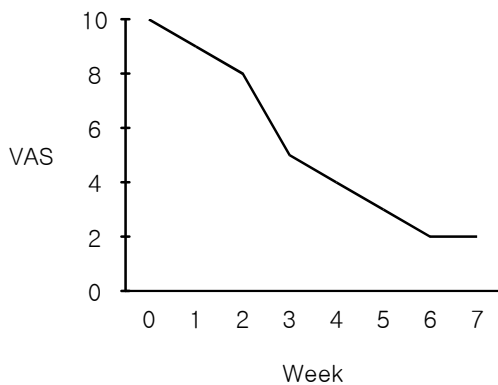


Fig. 4. The change of VAS

3) Yanagihara's scale의 변화

주 3회를 원칙으로 21회 치료 후 환자의 Yanagihara scale은 내원 당시 11점에서 36점으로 호전되었다.

Table 4. The Change of Yanagihara's Scale

Week	0*	1	2	3	4	5	6	7
Y-S**	11	13	17	24	29	32	34	36

* : 치료시작 전.

** : Yanagihara's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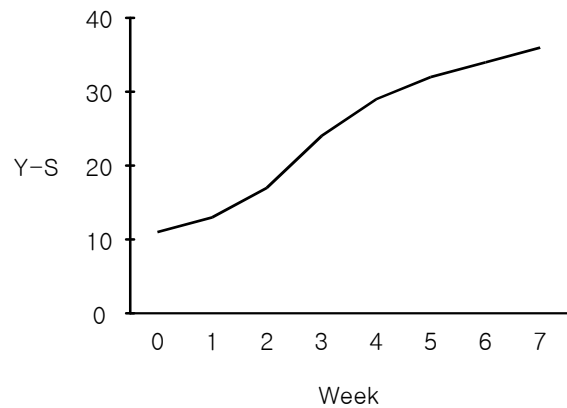


Fig. 5. The change of Yanagihara's scale

III. 고 찰

口眼喎斜는 顔面部의 편측표정근과 眼瞼 및 舌의 편측 운동장애 및 지각장애를 수반하는 질환으로, 사러과다, 과로, 한랭노출, 원인불명 등의 유인에 의하여 脈絡이 空虛한 상태에 風寒의 邪氣가 침입하여 經氣의 순환 異常으로 氣血이 調和되지 못하고 經筋의 滋養이 失調되어 弛緩不遂함으로써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양의학적으로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 해당된다^{15,16)}.

서양의학에서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外傷性和 非外傷性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개 내 외상, 측두골 내 외상 및 이하선이나 안면 수술 등으로 안면신경이 손상된 것은 外傷性이며, 급·만성 중이염, 내이염, 추체염 및 이성 대상포진과 Melkerson-Rosenthal 증후군, Bell's palsy는 非外傷性이다¹⁷⁾. 또한 안면신경마비는 감염 후 이차적으로 부종에 의한 신경압박, Herpes zoster 등과 같은 virus 감염, 세균감염, 염증, demyelinating disease, 당뇨병나 고혈압과 같은 유발요인, 임신 혹은 특발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¹⁸⁾.

대상포진은 수두의 초 감염 때 지각 신경절에 감염되어 있던 varicella-Zoster 바이러스가 다시 분열하여 신경을 따라 내려가 피부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외상, 척수종양, 호지킨병, 악성 림프종, 만성 백혈병 등이 재활성 유발인자로 생각되며, 체내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발현되는 난치성 질환 중의 하나이다¹⁹⁾.

본 증례의 환자는 고령 임신(임신 26주) 중 발생한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안면마비가 發하여 신경의 완전변성이 온 경우로,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는 발병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환측 안면의 움직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의 특성상 발병 당시는 임신중으로 태아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여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상포진 및 안면마비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권유로 성상신경차단술을 주 3회 6주간 시행하였으나 안면마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성상신경차단술 후 환자는 침술원에서 7회의 침치료를 받았으나 別無 好轉하였고, 이후 임신 30주경에는 한의원으로 옮겨 침치료 및 전침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씹는 동작 시 부드러움과 음식물이 덜 끼는 정도의 호전 외에 안면의 형태적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중 임신 35주에 早産을 하여 산후 조리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 한 달간의 산후 조리 후 안면마비의 상태가 발병 당시의 상태로 다시 악화되어 본원 침구과에 내원하게 되었다. 내원 당시에 환자는 수유 중으로 약물치료를 꺼려하여 침치료 및 봉약침술과 전침으로 치료하였다.

蜂毒은 性味が 苦辛平 有毒하고 補益精氣, 補腎壯陽, 活血祛瘀, 祛風濕하며 mellitin, apamin 등 약 40여 가지의 유효성분 작용으로 항염, 소염, 진통, 면역조절기능, 항균, 항바이러스효과, 해열, 혈관투과성 촉진효과가 있으며, 신경계의 흥분작용을 통해 신경장애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³⁻⁶⁾. 양 등²⁰⁾은 봉독의 補益精氣, 補腎壯陽, 活血祛瘀, 祛風濕하는 작용과 항염, 면역기능조절, 신경장애 개선효과에 착안하여 봉약침이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 유효하리라 보고 봉약침을 사용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최 등²¹⁾은 안면마비에 동반된 耳後痛에 봉약침을 시술하여 유효한 효과를, 김 등²²⁾은 구안와사의 患側 안면부에 봉약침을 사용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증례의 경우 이성 대상포진으로 발생한 안면마비로 病因과 회복률에 있어서 보다 어려운 점이 인정되었고, 본원 내원 이전에 여러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안면마비의 호전이 없었으므로 이전에 시행하지

않았던 치료 중 유의성이 보고된 치료법 중 봉약침을 선택하여 시술하게 되었다. 봉약침액의 시술부위가 자극에 민감한 안면부이기 때문에 10,000 : 1로 희석한 봉약침액을 사용하여 침치료 후 患側 魚腰·顴膠·地倉·迎香 부위에 한 穴당 0.01cc 皮下로 刺하였다.

1주일에 3회 치료를 원칙으로 하였고, 시술 첫날인 2009년 12월 6일 환자는 치료 후 귀가하여 눈썹에서 약한 瘙癢感和 함께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다고 하였다. 치료 3회 차인 12월 11일 이마 부위와 입주위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후 점차 호전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치료 8회차에 이마 주름의 1/3과 눈썹올림의 기능이 1/2로 호전되었다. 치료 14회차인 1월 19일 이마와 눈썹 부위의 움직임이 정상의 80% 이상으로 관찰되었으며 치료과정 중에 입-눈썹-코-입 등의 순서로 안면의 움직임이 개선되었다. 17회차인 2010년 1월 29일 ‘우’할 때의 口輪筋의 喞斜가 호전이 더딘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입모양이 호전되었다. 21회차에는 Yanagihara’s scale 36점으로 안면근육의 전반에서 양호한 호전이 관찰되었고, 환자가 느끼는 여타 증상도 VAS 2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치료과정 중에 음식을 먹거나 하는 등 입을 움직일 때 눈물이 나는 증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성 대상포진의 예후에 관한 논문들을 근거로 할 때 안면마비의 발생 후부터 내원일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안면마비의 회복률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8-10,23)}, 본 증례의 환자는 발병 직후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근전도상 신경변성이 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성상 임신중이었으므로 대상포진에 대한 약물치료나 기타 치료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원 내원시기가 발병 후 3개월 이후인 점과 출산과 수유 및 육아로 인해 氣血虛弱과 수면부족이 지속된 점 등이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임신중 발생한 대상포진성 안면마비로 3개월이 경과한 환자에게 침과 봉약침치료를 시행하여 안면마비에 유의할 만한 호전이 있었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 안면상태의 호전과 환자의 불편감개선 외에 근전도를 통한 비자발적 전위 변화를 다시 확인하지 못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보다 많은 사례를 통해 대상포진성 안면마비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의 안면마비의 치료에 봉약침의 유효성을 사례들을 통해 검증하고, 보다 다양한 원인에 따른 안면신경마비의 치료법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IV. 결 론

고령 임신중에 발생된 대상포진성 안면마비환자를 봉약침으로 치료하여 양호한 효과를 얻었고, 본 증례의 경우로 미루어 볼 때 임신이나 수유 등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 약을 기피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Bell's 마비뿐 아니라 대상포진성 구안와사에 관한 치료방법으로도 봉약침 요법은 응용해 볼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V. 참고문헌

- 민양기, 최종욱, 김리석. 일차진료를 위한 입상이 비인후과학임상. 서울 : 일조각. 2001 : 343-79.
- 윤덕미 역. 통증클리닉 진단치료지침. 서울 : 군자출판사. 2000 : 318-9.
-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침구학(중) 과주 : 집문당. 2008 : 429-35.
- 권기록, 고흥균, 김창환. 봉침에 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4 ; 11(1) : 159-71.
- 정혜윤, 고흥균. 봉독 약침액이 염증 및 통증관련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3) : 41-50.
- 고형균, 권기록, 인창식. 봉독약침요법.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9 : 1-13, 48, 78-89.
- 최우식, 김갑성, 이승덕. Ramsay hunts 1례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1 ; 18(1) : 237-47.
- 추무진, 양승덕, 신시옥, 최영석. 증후군의 예후인자에 대한 분석.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1996 : 39(2) : 217-22.
- 김경택, 이상흠, 심재현, 윤성희. 이성 대상포진의 치료와 예후에 대한 고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1997 ; 40(7) : 996-1001.
- 김덕준, 김중강, 김종훈. 이성대상포진의 안면신경마비의 예후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1992 ; 35(2) : 286-93.
- 조재훈, 김윤범. 이성대상포진 치험1례. 동의학회지. 2001 ; 5(1) : 202-10.
- 박혜선, 조수현, 오은영, 지선영. 이성 대상포진 증례보고 2례. 대한외관과학회지. 2001 ; 4(2) : 125-33.
- 권강, 박용환. Ramsay Hunt 신드롬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발병 2개월 이후 치료 효과가 나타난 2례. 대한외관과학회지. 2001 ; 14(2) : 1-17.
- Yanagihara N. Gading of fascial palsy. In Nerve surgery, Zurich, 1976. Fish(Ed). Amstelveen, Netherlands : Kugler Medical Publications. Brimingham, AI : Aesculapius Publishing Co. 1997 : 533-5e.
-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침구학(하) 과주 : 집문당. 2008 : 186-90.
- 최가원, 강재희, 김영일, 홍권의, 이현. 이후통을 동반한 Bell's palsy 환자 30례에 대한 소장정격과 체침의 임상적 비교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4 ; 21(4) : 125-34.
- 백만기. 최신 이비인후후과학. 서울 : 일문각. 1997 : 121-7.
- 이영진, 배철영. 최신 실전 임상가이드. 서울 : 한국의학. 1998 : 1030-1.
- 대한피부과학 교과서편찬위원회. 피부과학. 서울 : 여문각. 2002 : 352-3.
- 양가람, 송호섭.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봉약침 복합치료효과. 대한침구학회지. 2009 ; 26(4) : 29-37.
- 최주영 외 7인. 이후통을 호소하는 초기 안면신경마비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와 봉약침 병행치료의 비교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9 ; 26(5) : 95-103.
- 김민수, 김현중, 박영재, 김이화, 이은용. 봉독약침이 구안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4 ; 21(4) : 251-62.
- 신건우, 양미아, 조경숙, 임순광. Ramsay Hunt 증후군 : Acyclovir와 Prednisolone의 병용투여에 대한 안면신경마비의 치료효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1995 ; 38(6) : 842-46.